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아카데미’ 진행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8월 과정을 오는 22일과 23일에 실시한다.

22일에는 NH금융PLUS 삼성동금융센터(삼성역 5번 출구)에서 23일에는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각각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헤이블 글로벌 감사이벤트

KB증권은 해외선물·옵션 고객 대상 'H-able Global(헤이블 글로벌)' 고객 감사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 파생상품 전용 HTS인 'H-able Global'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B증권은 해외선물·옵션 신규 계좌 개설 고객과 2018년 5월부터 3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장기 미 거래고객에게 신청 일(유선신청)로부터 10월 말까지 2.99달러의 온라인거래(H-able Global, Global able, M-able)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한화투자증권

美 주식 직접거래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주식 직접거래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잠 못 이루는 밤, 미국주식 하고 혜택도 누리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화투자증권 미국 주식 서비스는 보유종인 계좌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최소수수료 없이 0.1%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현대건설

업계 첫 협력사와 채용박람회

현대건설이 업계 처음으로 협력사와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술교육원 재학생과 졸업생 100여명과 협력사 30여 개사를 이어주는 채용박람회를 진행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한 건설업 전문 기술인력 양성 기관이다. 교육원생들은 이곳에서 5~12개월간 플랜트 품질·전기·3D 설계, 건설공정관리 등 실무과정을 배운다. /채신화 기자

# 자본시장 신기록 갈아치운 한투 ‘유상호 효과’

한투증권, 거침없는 실적 성장세 상반기 순이익 ‘2873억’ 역대 최고 자본수익 1위... 글로벌 10위권 목표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상호식 경영’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투자증권 실적 성장세가 거침이 없다. 2011~2014년 4년 연속 업계 1위. 지난해 6847억원(전년 대비 129.4% 증가)의 영업이익으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13%대(연환산)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달성하는 등 유 상호가 만든 특유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생존 DNA가 여의도 증권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순이익 287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순이익(2706억원) 대비 167억원 증가한 실적으로 동기간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역대 최고 실적이다.

특히 상반기 연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연환산해 산출한 자기자본이익률(ROE) 13.2%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국내



유상호 한국증권 사장.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13%대를 넘기며 자본수익성 1위에 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위탁매매(BK) 부문, 자산관리(AM) 부문, 투자은행 부문(IB), 자산운용(Trading) 부문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별도 세전 손익 기준으로 위탁매매 부문은 1421억원을 기록하

며 전년 동기 대비 42.0%, 자산관리 부문은 659억원으로 21.1% 성장했다. 같은 기간 투자은행 부문은 1545억원(32.7%), 이자이익은 1125억원(40.6%), 자산운용 부문은 1548억원(15.0%)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도 20%로 낮아졌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2015년부터 리테일 자산관리 영업강화 정책 등으로 위탁매매 수익이 전체 비중에서 업계 수준보다 낮아 보이지만 오히려 IB-AM 사업 등 각 부문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모든 수익원 별로 안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업부문별 고른 성장이 장기 지속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유 사장은 아직 배가 고프다. 그의 꿈은 글로벌 투자은행(IB)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는 신년사에서 “단기금융업 첫 번째 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병목현상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수금융과 기업투자 분야를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1등 IB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아

시아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7월에는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단박증권을 ‘KIS 인도네시아’로 새롭게 출범시켜 2022년까지 주식 시장점유율(MS)의 5배 성장 및 인니 증권사 5위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투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2010년 진출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KIS 베트남’을 상반기에 38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935억원의 베트남 8위 증권사로 키웠고, 7월 25일부터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파생상품(선물) 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지영업 강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그는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며 소통하는 CEO로 통한다. 직원들에게 종종 “1등은 마약과도 같다”고 얘기하는 유 사장은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선순환 경영’ 철학을 주창하며 철저한 성과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권용원 “혁신성장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적극 지원”

(금투협회장)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펀드 계획 미들·백 오피스 중심국가 기대감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우선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가칭) 펀드를 만들어 혁신성장 자금을 조성한다. 또 혁신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창업도 중요하지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해 혁신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장과 정부 정책에는 공백이 있는데 금투협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달 10일 인도 뭉바이 증권협회(BBF)와 MOU를 맺고 자본시장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인도를 방문했던 권 회장은 “인도는 2020년까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금투협

GDP 5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중 1조달러를 디지털 이코노미(digital economy)에서 만들겠다는 내셔널 어젠다(national agenda)가 있다”며 “한국도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투협은 조만간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라는 혁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권 회장은 “2016년에 만들어진 1000

억달러(110조원)규모의 비전펀드는 이미 50% 이상 투자가 완료됐고, 2019년에 100조원 규모 2차 비전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해당 자금이 작게는 1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성장 기업에 투자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국유기업이 1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비전펀드에 대항하고 있고, 인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이코노미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고민 중의 하나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해외 투자처와 국내 금투업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겠다는 목표다.

권 회장은 “두바이, 터키 등은 외국인 자본 니즈(needs)가 크다”며 “협회가 대표적으로 중계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도입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연내 도입을 앞둔 만큼 한국이 미들 및 백 오피스의 중심국가로 거듭날 것 이란 기대감도 전했다. 이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미들 오피스는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등의 업무평가. 백 오피스는 거래를 마친 이후 거래를 확인하고, 회계처리 후 결제 및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권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미들·백 오피스의 중심국가로 되면 몇 만명의 추가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국내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디지털 혁신규제는 다각화되고, 자주 바뀌어 대응이 어렵다”며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디지털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계속 회원사들과 스테디하고 있고, 완성도 있을 때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HDC아이서비스, 내달 코스피 입성 추진

국내 최고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 HDC그룹의 핵심기업인 ‘HDC아이서비스’가 코스피시장 입성을 추진하고 있다.

HDC아이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HDC아이서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639만3700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8300원~1만7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531억~684억원이다. 수요예측은 오는 9월 4일~5일 양일간 진행되며 9월 10일~11일 청약이 거쳐 9월 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

이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

HDC아이서비스는 설립 이후 26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 왔고, 최근에는 조경 및 인테리어 사업 강화에 따른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2074억원이었던 매출은 2016년 2385억원, 2017년 2826억 원으로 16.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향후 HDC아이서비스는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기존 사업의 노하우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신 성장동력 장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영지 기자

## 롯데건설, 공장 배출 배가스 정화기술 확보

롯데건설이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가스 내 미세먼지와 수분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배가스처리장치와 그 처리장치를 세척하는 필터세척 유닛을 개발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배가스 처리장치는 화공·산업플랜트 및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음식물 발효가스, 바이오 가스 등에 포함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다.

이 기술은 롯데건설·청류에프앤에스·동진씨앤지가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특허를 출원해 올해 6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기존 처리장치는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배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분과 미세먼지를 별도로 제거한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배가스 처리장치는 가스 내 포함된 수분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해 기존 처리장치보다 효율이 높다. 또 기존 장치에 사용했던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2차 오염에서 자유롭다. 필터 수명도 길고 연속 운전이 가능하며 정비가 간편하다. /채신화 기자